

# 경찰 “실종 대학생 폰 포렌식 완료”

### 경찰 “실종 대학생 친구 행적 상당부분 파악”

### “100% 파악은 아냐...목적자 추가 진술 필요”

### 실종 대학생 휴대폰 포렌식 완료...“확인 불가”

서울 한강공원 근처에서 술을 마신 뒤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된 대학생 A(22)씨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당일 A씨와 함께 있었던 친구 B씨의 오전 3시부터 4시30분까지의 동선 정황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A씨가 실종된 날 친구 B씨의 오전 3시부터 4시 30분까지의 동선을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B씨가 탄 택시의 운전기사 등을 통해 이를 확인했으며, 다만 100% 파악된 상태가 아니어서 기존 목적자 추가 진술이나 새로운 목적자의 진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총 54대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정밀 분석 중이며, A씨와 B씨가 현장에 체류하고 있던 시간에 한강공원에 출입한 차량 133대의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동시간대 현장 주변의 목격자 중 현재까지 6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으며 수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통화내역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범죄 혐의점 여부와 관련된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부검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겠다”고만 말했다.

또한 지난 5일 민간수색팀이 한강 인근에서 두번째로 찾은 휴대폰과 역시 첫번째와 마찬가지로 B씨의 것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실종 시각으로 추정되는 지난달 25일 오전 3시40분 이후 행적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강공원 인근 CCTV와 주변에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영상도 입수해 분석하고 있으며, 유류품 등을 찾기 위해 사건 현장인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 한강을 수색 중에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친구 B씨가 갖고 있던 A씨 휴대폰 포렌식 결과도 받아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 결과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사립대 의대 재학생으로 알려진 A씨는 토요일인 지난달 24일 오후 11시에 친구를 만나다며 집 근처에 있는 반포한강공원으로 향했다. A씨는 실제 B씨를 만나 술을 마셨지만 다음 날 종적이 묘연해졌다.



서울 한강공원 근처에서 실종됐다가 끝내 시신으로 발견된 의대생 A(22)씨 발인식이 지난 5일 오전 8시 서울성모병원에서 열렸다.

함께 있던 B씨를 같은달 25일 새벽 3시30분께 자신의 부모와 통화에서 A씨가 취해 잠들었는데 깨울 수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씨를 통화 후 다시 잠이 들었다가 1시간 뒤 일어났고 A씨가 먼저 갔다고 생각해 노트북과 휴대폰을 챙겨 집으로 향했다고 한다.

오전 4시30분께 반포나들목 폐쇄회로(CC)TV에는 B씨가 공원을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한다. 하지만 A씨의 모습은 찍히지 않았다.

A씨 부모는 오전 5시30분께 연락을 받고 아들을 찾아나섰다. A씨 전화는 B씨가 가지고 있었고, 없어진 B씨의 전화는 연결이 되지 않다 전원이 끊어졌다. B씨는 자신이 A씨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던 것

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없어진 B씨 휴대폰을 찾기 위해 한강공원 일대와 수중 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A씨는 실종 5일 뒤인 지난달 30일 오후 3시50분께 실종 장소인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부근에서 발견됐다. 민간구조사의 구조견이 검정 물체가 물에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반응했고, 이를 뒤집어보자 A씨가 실종 당시 입었던 옷차림과 똑같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시신 왼쪽 귀 뒷부분에는 손가락 2마디 크기의 자상이 있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상처가 직접적인 사인이 아니라는 구두 소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 부검 결과는 2~3주 후에 나올 예정이다.

김민정기자

## 광주 남부소방, 화재사례 분석 통한 맞춤형 교육

광주 남부소방서는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증가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근 리튬(이온)배터리 충전 및 사용 중 화재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남부 관내에서는 지난 3월 폐건전지(배터리) 더미에서 빗물과 화학반응(추진)해 화재가 발생했고 전동킥보드 정비 중 배터리 손상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충전식 배터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리튬이온배터리는 크기가 작고 에너지 밀도가 높으며 가연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화재나 폭발에 취약하다.

남부소방서는 화재 예방을 위해 정식으로 인증받은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고 사람이 없는 상태 또는 취침 중 배터리 충전을 자제하도록 안내했다.

정신도 남부소방서장은 “배터리가 부풀거나 과도하게 뜨거워지면 사용 및 충전을 중단하고 폐기하는 등 사용자의 주의와 관심이 화재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윤희기자

## 완도해경, ‘함정 클린데이’ 실시로 청결상태 향상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안성식)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승조원 복지·건강증진을 위해 함정 청결 향상 방안으로 ‘함정클린데이’를 지정·운영한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함정 클린데이란 정박기간 첫 주 1일과 출동 중 최소 1일을 지정하여 전 직원이 동참하여 경비함정 내외 청결상태 향상과 정비 유지·보수를 위해 관리하는 날이다.

이에 완도해경서장이 직접 경비함정을 방문하여 체크리스트에 의거 환경 개선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승조원들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소형 경비함정의 승조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해 정비관리운영팀의 김재권 경사가 적극행정 일환으로 ‘먹는 물 음용방법 개선’을 정수기 업체와 협력하여 별도 음용수탱크 등을 설치, 시범운영 중인 경비함을 방문하여 직원들의 만족도와 업무 능력 향상을 확인하였다.

완도=이민혁기자

## 여수소방, 삼산면 초도위생매립시설 화재 완전진화

여수소방서(서장 김청수)는 어제 12시에 발생한 여수시 삼산면 초도리에 위치한 초도위생매립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화재를 완전히 진화했다고 밝혔다.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한 초도 내 배치된 의용소방대와 산불진화차를 이용해 화재진압에 나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 30여분만에 초기진화에 성공하였으나, 매립지 특성 상 재발화의 위험성이 커 잔불정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여수소방서와 삼산면은 소방력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결정하여, 오후 7시 여수시청 철선에 여수시 내 소방차량 2대와 소방력 7명을 선적하여 3시간여만인 밤 10시 30분 경 초도에 도착하여 화재진압에 나섰다.

다행히, 화재진압 도중 재발화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시계확보 등 연기로 인해 대원들의 진압환경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소방당국은 화재원인을 자연발화로 추정하고 있고, 약 2백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낳았다고 밝혔다.

여수=오상호기자

## 무안소방서장, 무안군 대형공사장 현장간담회 실시

무안소방서(서장 박원국)는 지난달 28일부터 삼향읍 중흥스클래스 등 공사현장을 찾아 현장확인 및 간담회를 실시 했다.

최근 세종시와 경기도 공동주택 공사장 화재처럼 대형공사장에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안전관리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주요 내용은 ▲공사장 관계자와의 간담회 ▲주변 위험 요소 확인 ▲용접·용단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화재안전관리실태 점검 및 사고 예방 컨설팅 등이다.

무안=이기성기자

## ‘쌀 유통업 위장’ 마약 거래 일당 9명 검찰 송치

### 대마초 38.65g·필로폰 1.3g·대마 1주 압수한 뒤 여죄 조사

쌀 유통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마약을 거래한 일당이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쌀 판매를 위장해 각종 마약을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붙잡은 A(50)·B(47)씨 등 9명 중 6명을 구속하고, 3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7월 사이 전남 지역에서 직거래와 택배 등을 이용해 지인 등에게 각종 마약을 여러 차례 거래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B씨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마약 밀수·공급총책에게

쌀을 보내주고 쌀값 대신 마약을 받았고, 공범 7명과 함께 마약을 판매·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화물로 쌀과 함께 마약을 몰래 유통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들 중 1명은 대마를 직접 재배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대마초 38.65g, 필로폰 1.3g, 대마 1주를 압수한 뒤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김민정기자

## 방에 방치된 2세남아, 울음소리로 구조...학대여부 수사

경찰이 집에 홀로 방치된 두 살 아이를 구조한 뒤 부모의 학대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0시54분 광주 북구 연립주

택의 한 세대에서 ‘아이가 계속 운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어지럽혀진 방 안에 홀로 있던 두 살 남아를 발견했다. 20대 부모에게 연락한 뒤

아이를 영아 일시보호소로 보냈다.

집 내부는 2주가량 청소가 이뤄지지 않아 지저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부모가 아이를 홀로 방치

한 경위와 학대 여부를 조사한 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지 정할 방침이다.

최이슬기자

# 서버구축 및 운영

##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mailto:junsol@junsol.com)